

기윤실 자발적불편운동 4월 캠페인

# 종이컵 대신 머그컵과 텀블러를 사용해요

4월 5일은 식목일  
4월 22일은 지구의 날입니다.  
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  
4월 한달 종이컵은 줄이고,  
지구 생명을 살려 내자요~



\*기윤실 자발적불편운동은 자기를 미어 종의 형태로 오신 예수님을 본  
받아 가정과 교회, 사회에서 나무부터, 지구부터, 작은 것부터 그리스도인들  
이 자발적으로 불편과 손해를 감수함으로써 고동받는 이웃과 약자를 위  
한 복음의 함명한 윤리적 삶을 이루어가는 운동입니다.

기독교인들이 4월 한 달간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 
까요? 작은 실천이지만, 멋지고 푸른 나무들이 가득한 숲을 그리면서  
우리 먼저 집중해서 실천해봅시다.

## 이 려 게 실 천 해 요

- ① 종이컵 대신 개인 머그컵과 텀블러를 사용해요.
- ② 음료를 주문할 때 '머그컵에 주세요'를 외쳐요.
- ③ 종이컵이 나오는 자판기는 멀리해요~



\*기윤실 자발적불편운동 실천가이드북  
(행복을 위한 불편레시피 30)에서  
더 많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
\*우리나라에서는 종이컵의 생산을 위  
해 매년 1천억원이상의 비용과 20년 된  
나무 1,500만 그루 사용하고 있습니다.  
\*종이컵 생산과정에서 16만톤의 이산  
화탄소를 배출되며 사용된 종이컵이 썩  
는데 20년 소요됩니다. \*직원 20명인  
사무실에서 한 달에 2천개, 학생수가 2  
만 명인 대학교의 하루 4만개의 종이컵  
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\*비닐이 코팅된  
종이컵은 폐지 재활용이 어렵습니다.  
(발췌 / 자원순환사회연대)